

북촌우물가

Andong Presbyterian Church News Letter

2009년 3월호

통권 제 189호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동교회
ANDONG PRESBYTERIAN CHURCH

2월 교우소식

새 가족

- ❁ 이수련(104구역), 종로구 가회동 1-216 202호.
☎ 011-9024-5955
- ❁ 설진아(103구역), 종로구 경운동 운현궁 SK허브101-807호.
☎010-4811-4715
- ❁ 최석만(211구역), 노원구 상계동 206-2.
☎ 010-4877-9520, 김윤식집사 인도.
- ❁ 이완구·남명희(102구역), 종로구 삼청동 63-22
☎010-5015-8075
- ❁ 김정웅,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아) 116-1201
☎ 546-3943(김윤식집사 인도)
- ❁ 송범식·이미진, 도봉구 쌍문4동 금호(아) 203-605호.
☎ 993-1128 (이의홍집사 인도)

감 사

- ☎ 이옥순교우 8일(주일) 점심식사 제공.
- ☎ 백종관장로·이선옥집사, 22일(주일) 점심식사 제공.

입 원

- ❁ 김도형교우(최묘희권사 장남), 상계백병원 905호실.
- ❁ 김무영집사, 분당 서울대병원 5210호.

출 국

- ☎ 이효종·김희진장로, 대학합창단 유럽순회연주차 9일-21일

별 세

- ☎ 서욱종씨(92세, 이성분집사 시부), 5일 별세 7일 장례.

이 사

- ☎ 오원표집사·김호수권사, 강남구 삼성2동 11
롯데캐슬프레미어(아) 102-903

축 하

- ☎ 유연준권사, 조형갤러리<인사동>에서
11일(수) ~ 17일(화)까지 그림전시회.

2009년 여전도회 헌신예배

강재덕 권사

지난 2월 15일 주일 오후3시에는 여전도회 헌신예배를 드렸다. 오군자 한샘회장의 예배 인도와 김정수 한빛회장의 대표기도, 남성합창단의 특송이 있었다. 특히, 교회 창립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여전도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초청 행사에 앞서 그분들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이신 한국염 목사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2007년 12월 31일자로 한국거주 외국인 이주민은 단기체류외국인을 포함해서 1,066,273명인데 이중 결혼이민자가 10.4%를 차지하고 있다. 여성 결혼이민자로 이뤄진 다문화가정은 숫자적으로 연 10% 이상씩 증가

하고 있는 실정이며 여성 결혼이민자가 직면하는 가장 큰 문제는 가정폭력과 남편들이 아내를 버리는 경우로 성적 학대나 인격 모독, 남편의 알콜중독이나 정신이상 등으로 이혼할 경우, 뚜렷한 이유 없이 이혼을 강요하여 합의이혼을 하면 이주여성은 강제출국대상이 되어버린다. 또한 한국사회는 이미 21개국 이상과 결혼 관계를 맺고 있고 앞으로 국제결혼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머지않아 다인종, 다문화 사회에 접어들게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정책이나 국민인식은 문화의 다양성을 수용하기 보다는 한국문화로의 동화주의를 강조한다. 여성 결혼이민자들은 일부 나라를 제외하고는 구 사회주의권 나라 출신으로 한국보다 양성평등적인 가족구조와 가족문화를 갖고 있는데 이들의 문화가 존중되기 보다는 일방적으로 한국의 가부장적 문화 수용을 강요당하는데서 문화적 갈등이 일고 있다. 나아가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은 혼혈인이라 하여 차별을 당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가정이 빈곤하기 때문에 성장에 필요한 지지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다. 이국 여성이었던 룯이 자기 나라와 친척들을 버리고 시어머니나 오미를 따라 나왔던 것은 나오미의 사랑에 감동되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듯이 우리가 다문화가정을 초청하는 행사도 100년의 깊은 사랑의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영 목사님께서 예수보다는 예수의 사랑을 먼저 느끼게 하면 선교는 저절로 되는 것이라 말씀하시며 선부른 시혜주의를 경계하셨듯이 우리 교회를 방문한 다문화 가족들이 한국인의 정, 안동교회의 사랑을 듬뿍 안고 돌아가는 아름다운 시간을 만들기 위해 세심한 준비와 배려가 필요하리라고 본다.

한사랑의 날

정성라 회원

2009년 02월 27일 오후 여섯시! 차가움에서 따스함으로 넘어가는 길목에서 우리 한사랑 식구들은 만났습니다. 모두들 지친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할까? 지루함과 피곤함에 귀찮은 듯 친교실 문을 들어섰지만, 한 사람 두 사람 우리 한사랑 회원들이 모이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 준비한 갖가지 음식들을 한상 차려놓으며 점차 즐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각지회의 도움의 손길로 맛이 있고 행

복이 있는 저녁을 먹으며 풍요로움 또한 만끽하였습니다. 강춘구 경조부장님의 사회와 김미정 봉사부장님의 기도로 2부 순서를 진행하였습니다. 안종혁 목사님의 누가복음 19장11절~27절 말씀의 "아직(Not yet)"이란 제목으로 설교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 받은 선물의 가치와 사용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고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아픔도 주시고 힘겨움도 주시는 것 같아요. 그것들을 이기고 하나님과 다시 만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마도 그 아픔의 고통의 행복을 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느 덧 시간은 흘러 친교의 시간이 왔습니다. 설교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아픔과 어려움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한결 가벼워진 마음으로 친교의 시간을 맞이할 수 있었지요. 회계 김자준 집사님의 도움으로 준비한 여러 가지 선물로 우리들은 '가위 바위 보' 대결로 선물 타기를 하였습니다. 작은 선물이지만 모두들 행복한 어린 아이인듯 얼굴엔 웃음이 떠나지 않았습니 다.

마우리의 시간! 빠르게 흐른 시간을 야속해하며 우리는 서둘러 경건의 시간을 갖기로 하였습니다. 조그만 촛불로 한방 가득 불을 밝히고 마음을 가라앉히고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에 집중하였습니다. 박병례 회장님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그간의 이야기, 우리의 기도제목, 앞으로 나아갈 한사랑의 길에 대해서 이야기 했습니다. 때로는 웃기도 하고, 때로는 안타까워 하고 좋은 일엔 축하해 주기도 하며 여전도회실 안을 따스함이 가득한 우리의 마음으로 채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한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한사랑의 날에 다시 한 번 깨달는 좋은 시간 이었습니다. 시간은 야속하게 혼자서 달아나려 하지만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고 주님의 뜻에 함께 가자는 마음을 서로에게 전달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한사랑의 날을 위해 준비한 것들을 모두에게 나눠주고, 서로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며 밤바람의 차가움에도 우리는 따스함을 가지고 헤어질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2009 교사대학

지난 2월 17일(화)부터 20일(금)까지 4일간 안동교회 본당에서는 2009교사대학이 열렸다. 오후6시부터 친교실에서는 식사가 제공되었다. 장신대 기독교 교육학 박상진 교수님과 담임목사 황영태 목사님께서 강사로 수고해 주셨다. 박상진 교수님께서 ‘성육신적 교사’와 ‘교수방법의 실제’라는 주제로 강의하셨다. 바쁜 주중의 일정에도 불구하고, 매일 30-40명의 교사들이 참석하여 배움의 귀한 시간을 가졌다. 강의 후에는 소그룹으로 배운 것을 복습하며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28:20)

김은주 교사

늘 이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을 떠올리면서 교사됨에 나의 태도를 생각하곤 하였다. 큰 그림은 그려졌지만, 확신할 수 없었던 부분들을 교사대학 강의로 통하여 깨닫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깊은 내면까지 감동시켜주신 것은 ‘교사 자신을 위한 준비’ 프로그램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써 ‘나’ 자신을 점검 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교사가 보일 모범 종류 5가지 중에서(예배, 말씀, 기도, 성장, 섬김) 나에게 가장 부족했던 부분은 말씀 모범인 것을 발견했다. 놀랍게도,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생겨서 말씀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원한다는 고백이 내 안에 기쁨으로 가득 찼다. 또한, 아이들과 의사소통을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며, 아이들이 무엇을 고민하는지, 생각하는지, 알고 싶고 아이들과 똑같은 마음을 품어 그들과 함께 울고 웃는 교사가 되고 싶다는 소망이 생겼다. 그리고 나의 기도 시간에 그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영적인 중보자가 되어 주고 싶은 생각에 마음이 벅차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자녀임이 너무 행복하고 자랑스럽다.

유치부 방석 게임

이은주 교사

유치부는 지난 15일 김미영 전도사님의 ‘나병환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이라는 주제의 말씀 후 특별 전체활동 시간을 가졌다. 교사들과 함께 손을 잡고 원을 만들어 함께하는 찬양과 율동시간 후, 각 반 별로 방석 징검다리 건너기와 방석차지게임을 하였다. 유치부 친구들 모두 질서정연한 가운데 즐거운 마음으로 게임에 참여하였다. 단체 게임에서는 5세, 7세반이 우승을 하였고, 개인 방석차지게임에서는 6세반의 신기령 어린이가 게임왕 어린이로 선정되었다. 유치부 어린이들 모두가 하나가 되는 활동을 통해 친구들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는 귀한 시간이 되었다.

아동부 겨울 성경학교

류화숙 전도사

2월 21일~22일에 ‘예배’라는 주제로 아동부 겨울 성경학교가 1박2일 동안 진행되었다. 모두 39명의 아동과 18명의 교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토요일 9시에 교육관에서 등록을 기점으로 시작되었다. 등록을 모두 마친 후 9시 30분에 준비된 차량을 타고 서울랜드로 출발했다. 갈보리교회(담임목사 강문호), 성민대학교, CMS, 서울랜드가 공동주최한 성막체험전에 참석했는데, 이는 08년 7월부터 성막(聖幕)의 권위자이신 갈보리교회 강문호 목사님이 기획 운영함으로써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약도인 성막’에 대하여 새로이 알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었다. 모형과 전시물 등을 보면서 자세하게 성막의 구조와 번제의 과정을 체험할 수 있었고 영상을 통해 구체적으로 죄를 없애기 위한 제사의 과정을 공부하고 자신의 죄를 양 모양 종이에 빼곡히 적어서 번제단에 올려 태우는 실제 체험도 해 볼 수 있었다. 아이들과 선생님들에게 좋은 배움과 체험의 시간이 되었다. 이어서 맛있는 점심을 먹고 눈썰매와 놀이기구를 타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동심의 세계에 빠져보기도 했다.

안동교회로 돌아와서 권사님들이 정성껏 준비해 주신 카레밥으로 시장을 달래고 교육관으로 이동해서 본격적인 프로그램에 돌입했다. 1시간 정도 레크레이션으로 몸과 마음의 긴장과 피로를 풀고 이어지는 찬양의 시간에 아이들은 모두 다윗이 되어 온몸이 땅에 흠뻑 젖을 정도로 열심히 찬양을

했다.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이라는 주제로 전도사님의 열정적인 특강을 듣고 잠시 결단과 기도의 시간을 가진 다음 1층과 2층을 나누어 영화(이집트 왕자,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상영의 시간이 있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피곤한 몸을 눕히자마자 꿈나라로 여행을 떠났지만 막 사춘기에 접어든 6학년 학생들은 날이 흰히 셀 때까지 자기들만의 이야기로 밤을 지새우기도 했다.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아침운동을 대신하고 맛있게 준비된 계란 토스트를 먹고 곧이어 센터학습으로 들어갔다. 모두 5개의 방으로 구성된 이 시간에는 예배의 실제 구성요소가 되는 기도, 사도신경, 봉헌, 주기도문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재밌고 실감나게 온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안동교회 아동부가 예배 때 참가하고 있는 게임방에서는 다양한 질문과 ACTION으로 일명 군기방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모든 센터 학습을 마치고 11시부터 시작된 아동부 주일 예배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드러지는 예배를 전심으로 드리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 때 피곤을 무릅쓰고 프로그램을 진행시킨 선생님들의 얼굴에 환한 미소와 뿌듯함이 살포시 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모든 과정에서 안전사고나 별 탈 없이 은혜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정말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성경암송퀴즈대회

-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시119:105) -

정학재 집사

22일 오전 10시 30분부터 한 시간 동안 지하 친 교실에서 우리 교회 중고등부(부장 유양재 안수집사, 지도 류금주 목사)를 대상으로 성경암송퀴즈대회가 열렸다. 학생과 교사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중고등부 교사 정학재 집사의 사회로 열린 대회 1부 단체전에서는 학년별로 새로 번역된 주기도문, 사도신경과 영어 주기도문, 사도신경을 암송하고, 영어 찬송과 성경 목록가를 불렀으며, 마가복음(공통), 마태복음(중등부), 로마서(고등부)에서 김에녹, 김승희, 서동진 교사가 발췌한 암송 구절을 암송하였다. 이어 2부는 성경 골든벨로 열려 마가복음 내용과 겨울 수련회 때 함께 만

든 잠언 달력 말씀을 퀴즈로 풀어보았다. 이날 대회에서 단체상은 중학교 2학년(담임 고상요 집사)과 고등학교 3학년(담임 정학재 집사)이 수상하였고, 학생과 교사가 모두 참여하여 열린 개인전에서는 서동진 교사가 1등, 김승희 교사와 이해나 학생(고2)이 2등상을 수상하였다. 대회 후 참가한 학생들에게는 예쁜 기념품이 주어졌다. 이번 대회를 통해 중고등부 학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으로 양육되어 세상을 향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인재들로 성장하기를 소원한다.

교회 창립 100주년 축하합니다

최선희

처음 안동교회에 나가 유경재 목사님 설교를 들었던것이 기억납니다. 아마 간디에 대한 이야기를 곁들여 평화와 사랑에 대해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신자로서 충실한 삶을 살지는 못하지만, 처음엔 그저 그런 가르침이 좋아서, 교회를 나갔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세례를 받고 조금씩 걸음마를 시작하려는 때쯤이 되었을까 시골로 내려오면서 부모님이 다니시는 새로운 교회 목사님의 말씀에 감동하지 못하고 갈등을 하다가 집 가까운 아주 작은 교회로 옮기면서 조금씩 신앙이 자라고 있습니다. 다니는 교회는 한곳이라도 배움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배울 때 그 폭이 넓혀지고 깊이 있게 할 수 있다는 생각과 함께 안동교회 목사님들의 말씀에 많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어서 이곳(안동교회 홈페이지)에 종종 들어와 인터넷으로 말씀 들곤 합니다. 전 요즘 방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하면서도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다른 목사님들이 잘 하시지 않는 계시록 강해도 잘 듣고 있습니다. 한번 듣고 잊었던 것들은 다시 듣고 하면서 삶에 적용시키려고 노력하지만 잘 되지 않을때 많습니다..^^ 이곳에서, 창립 100주년 기념예배주일이 왔다는 거 알게 되어 가서 예배에 참석하고 싶은맘 가득 생겼지만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어디 나가기조차 어려워서 갈 생각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황금석 집사님으로 부터 "예배에 함께 참석하자"는 문자를 받고 이렇게나마 축하하는 맘 전하고

싶어 글 올리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를 늘 기억해 주시는 황금석 집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분들과, 또 모든 교회 가족분들 감사합니다. 안동교회 모든분들께 성령 더욱 충만 하시길 기도드리며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총회·연합회·교계 소식

예장합동정통 총회임원 '함께 예배'

본교단과 총회 임원과 예장합동정통(총회장:장원기) 총회 임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하고 장로교회 연합을 강조했다. 본교단 총회장 김삼환목사(명성교회 시무)는 지난 15일 주일 저녁 예배에 명성교회로 본교단 총회 임원과 예장합동정통 총회 임원들을 초청해 함께 예배했다. 이날 예배에는 예장합동정통 교단 총회장 장원기목사(흥광교회)와 부총회장 유만석목사(수원명성교회)를 비롯해 총무 조병선목사 등 예장합동정통 총회 임원이 모두 참석했다. 총회장 김삼환목사는 이 자리에서 한국교회 역사에서 장로교회의 분열로 인한 아픔을 언급하고 "형제가 서로 사랑하며 기뻐하는 것이 부모의 기쁨인 것처럼 양 교단이 함께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삼환 총회장의 제안에 따라 참석자들의 기립박수를 받고 등단한 예장합동정통 총회장 장원기목사(흥광교회)는 '여호와와 나의 모든 것'을 주제로 설교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은 형제가 하나되어 연합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모든 장로교단이 연합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도한다"고 말했다.

양 교단 임원들은 예배가 끝난 뒤에도 별도의 친교모임을 가졌으며, 예장합동정통 장원기총회장은 김삼환총회장과 본교단 총회 임원들을 초청하겠다고 밝혔다. 본교단 총회 임원들은 예장합동정통 총회가 오는 3월 9~11일 흥천 비발디파크에서 개최하는 전국목회자대회에 답방 형식으로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본교단 총회장과 타 교단 총회장 및 총회 임원간의 교류는 그동안 예장합동기장 등 장로교단들과 진행돼 왔으며, 본교단 총

회 임원이 예장합동정통 총회 임원들과 한 자리에서 예배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또한 김삼환총회장은 총회장 취임 이후 지난해 11월에도 기장총회장 서재일목사(원주영강교회)와 총회임원들을 초청해 함께 예배한 바 있다.

환율로 선교비 1/3 사라졌다

전 세계를 강타한 경제난으로 세계경제가 충격에 빠져 들고 있는 가운데 국내 교회들의 선교 후원에 의존해 온 선교현장 또한 고환율 쓰나미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대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총회는 선교사 파송에 있어 선교비 지원 약정을 미화 기준으로 최소 1천8백불로 제시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교회들은 달러당 1천원을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 기준으로 예산을 책정, 지원해 오고 있다. 이로 인해 달러 가치가 상승하면서 실제적으로 선교사들에게 전달되는 후원 규모가 큰 폭으로 줄기 시작했으며, 1천5백원 대까지 상승한 요즘은 실제 후원금이 30퍼센트 이상이나 줄어들게 된다. 여기에 현지 화폐로 교환하는 과정에서 또 다시 환차손이 발생, 그야말로 '반토막 선교비'로 사역과 생활을 감당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한다.

태국에서 사역 중인 한 선교사는 "(전달되는 실제 후원 규모가 줄어든 뒤) 생활비를 줄여 사역을 이어가고 있지만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현지 화폐로 인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차손도 고스란히 선교사들의 몫이다 보니 전에 비해 절반 가까이 줄어든 현실"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번 경제위기는 환율에 관계없이 달러로 선교비를 지원해 온 교회들에게도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서울 강남노회 서울교회(이종윤목사 시무)는 그간 환율 상승에 따라 재정 지원 상승 부담을 교회 재정으로 총당해 온 교회. 동 교회 선교부 이규정목사는 "고환율로 인해 이제까지만 20% 이상 예산 지출이 늘어났지만 선교 현장의 선교사님들이 어려움을 가중 시킬 수 없어 추가적인 부담을 교회가 감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교단들과 선교단체들이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총회 선교부 GMS 이사회는 최근 선교비 중 매달 공제해 조성한 기금 중 2억원을 선교사들에게 긴급히 지급하도록 결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GMS 강대흥총무는 "안식년 기금과 보험, 퇴직금 등을 위해 20%를 공제해 왔고 이 기금 중 일부인 2억 원을 환율 상승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교사들에게 긴급 지원키로 이사회에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단시간에 환율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한 가운데 총회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지난 24일 실행위원회를 가진 세계선교부는 후원교회들에게 한시적인 선교비 증액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대형교회들 대상으로 긴급 선교자금 모금을 진행하는 방안도 연구하기로 했다. 세계선교부 한 실무자는 "선교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해 달려 기준 선교비 지원이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교단차원에서 '달려 모으기' 캠페인을 전개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GP선교회 연구개발원(원장:조용중)이 최근 선교기관의 경제위기관리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중 19%의 선교단체들이 선교비를 달러로 지원하는 것이 가장 좋은 대안이며, 실제로도 이 방법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75% 이상의 교회들이 세계경제위기로 인해 선교비 모금 및 지원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고통의 파고를 넘기 위해 상당수의 선교부(단체)가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미자립교회 목회자 초청 세미나

서울강남노회(노회장:홍순화)에서 지원하고 있는 전국 6개 노회 미자립 교회 목회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현대 목회의 방향을 논의하는 한편 자립을 위한 목회 전략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서울강남노회 자립위원회(위원장:권찬은) 주최로 지난 19, 20일 양일간 소망수양관에서 열린 목회자 세미나에는 경기노회 총북노회 목포동노회 경안노회 강원노회 강원동노회 등에서 1백50여 명의 미자립교회 목회자와 자립화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특히 이번 세미나에서는 김지철목사(소망교회)와 이종윤목사(서울교회), 윤여풍목사(총성교회)가 강사로 참여해 목회 경험과 현대 목회의 흐

름을 나누고, 교회 성장을 위한 사례 등을 소개했다.

이자리에서 김지철목사는 '목회자의 영성'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소망교회 교인들의 출신지역이 상당수 농어촌 지역임을 소개하며, "이들은 농촌지역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해 오늘에 이르고 있는 만큼 대도시의 교회들은 농어촌 교회에 빛진자"라고 소개하며, 도시교회가 농어촌 교회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김 목사는 "도시와 농어촌의 교회들이 함께 나누는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면서 "목회자들이 가슴과 몸으로 헌신한 결과 오늘의 한국교회가 있게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세미나 1부 예배는 권찬은목사(동남교회)의 사회로 시작, 서울강남노회장 홍순화목사(주심교회)가 '목자없는 양'을 주제로한 설교를 통해 "목회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며 목회자의 사명을 거듭 강조했다. 세미나에 이어 진행된 파송예배는 경기노회 자립화위원장 허수목사(산상교회)의 인도로 진행, 목포동노회장 김상균목사(부동교회)가 '미쳐봅시다'를 제목으로 설교했다.

3월8일은 남선교회주일

다가오는 3월 8일 주일은 총회가 정하고 전국 교회가 지키는 남선교회주일이다. 남선교회전국연합회(회장:표명민)는 총회 산하 전국 교회에 공문을 발송하고 협력을 당부했다. 총회장 김상환목사는 메시지를 발표하고 교회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했다. 남선교회전국연합회는 본교단 총회 산하 단체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연합하여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고, 성경의 교훈으로 기독교적인 인격을 높이고 서로 도우며 교회와 사회에 봉사하는 것을 최우선 목적에 두고 있다. 전국 66개 노회연합회 산하에 60만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산하에 익투스찬양단과 장학재단 등을 운영하면서 남성 성도들의 신앙을 선교 사명으로 이끄는 데 역점을 두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총회장 김상환목사는 남선교회주일 메시지를 통해 △북한 봉수교회 재건축 △경전철제운동 △해외선교 등 남선교회의 선교업적을 치하하고 "평신도들이 실생활에 실천하는 운동을 중심으로 남선

교회는 물론 교회와 교단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회장 표영민장로는 남선교회가 이 시대에 직면한 선교적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남선교회주일을 지키고 특별헌금을 실시해 전국연합회에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본교단 표준주석 집필 '활기'

목회자와 교회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표준주석의 필요성에 따라 교육자원부(부장:나정대 총무:김치성) 수임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표준주석 발간 사업이 활기를 띠고 있다. 총회 표준주석 편찬위원회(공동위원장:김중은·이종윤)는 지난 6일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 회의실에서 93회기 첫 모임을 갖고, 집필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구·신약 감독위원회 각각 3인을 선정해 올해 말로 예정돼 있는 원고 마감 이후 일정을 준비했다.

이날 위원회는 장신대 김중은교수를 중심으로 하는 구약 감독위원으로 강성열(호남신대) 김회권(송실대) 배희숙교수(장신대)를, 이종윤목사(서울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신약 감독위원으로 소기천(장신대) 배현주(부산장신대) 조광호교수(서울장신대)를 선정했으며, 미정이던 구약의 에스더와 아가서 집필자로 각각 이미숙, 강승일박사를 선정했다. 또한 오는 8월 중에 집필자 전체모임을 갖고, 위원장이 격려 서신을 발송하는 등 대화와 만남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위원회는 총회 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제 93회 총회에 상정된 '성경 개역개정판 연구위원회 설치의 건' 관련 현의안도 함께 연구하게 됐다. 이날 위원들은 표준주석 집필 과정에서 집필자들이 우선적으로 개역개정판 성경의 내용을 상세히 검토하도록 하고, 오류 문제와 관련해 성서공회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도 모색하기로 했다.

대북 정책에 대한 이해 높이자

총회 남북한선교통일위원회(위원장:김석주)는 지난 17일 유성 레전드호텔에서 북한선교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남북 관계와 북한 선교 정책'을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에는 조용남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상근회담대표가 '남북관계 현황과

상생공영 정책'을 주제로 정부의 대북 정책과 지난해 활동 등을 소개하며, 전 통일부 문화교류팀장 이성원서기관이 '북한선교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강연했다. 또한 위원회 회계 김용덕장로(금호중앙교회)도 기독교인의 남북교류 및 지원에 대한 발제를

통해 최근 남북의 상황과 교회들의 교류 현황 등에 대해 소개했다.

남북한선교통일위원회는 총회와 노회 북한 선교 담당자들이 먼저 국가의 정책을 바로 이해하고 발전적인 정책을 세워나가기 위해 마련된 이번 세미나를 위한 교회들의 기도를 요청하며, 남북 관계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 총회 정책을 세워가는 데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했다.

총회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대책위 구성

총회 초·중등 교육법개정안대책위원회가 지난 1월 22일 첫 모임을 갖고 위원장에 남기탁목사(북원교회)를 선임하는 등 조직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이날 모임을 통해 위원회의 역할과 사업 방향 등을 논의한 위원들은 한국교회가 사립학교의 설립목적을 지키고, 종교과목은 종교계 학교의 건학이념을 실현하는 필수교과이므로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데 공감하고, 총회 및 각 노회원들과 협력해 교육법 개정 법률안에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대책위원회는 김정석장로(영락교회), 김광조교장(대광고등학교), 허양수목사(전기전교회) 등을 전문위원으로 선임하고 △총회임원 등과 함께 국회 방문 △본교단 내 교육법개정안 문제 이슈화 △노회 및 지역 교회들과의 협력 등 다양한 활동 안을 논의하며 총회와 함께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위원장 남기탁목사는 "초·중등교육법개정안은 사립학교의 특성 있는 설립목적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교육기본법 25조와 배치되고, 종교과목은 종교계학교의 건학이념을 실현하는 필수교과이다"며 "기독교학교의 종교과목 개설시 복수과목편성을 법으로 정하는 것은 사립학교의 정체성과 교육과정 편성 자율권을 침해하는 교육법을 적극 저지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대책위원회는 오는 3월 10일 전문위원과 함께 2차 위원회 모임을 갖고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조율할 예정이다.

"하나되는 신학교 필요하다"

본교단이 안고 있는 숙원 과제 중의 하나인 총회 산하 7개 신학대학교의 '통합' 문제가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회에서 7개 신학대학교에 대한 통합 방안이 부결된 이후, 다시 논의를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총회 신학교육부(부장:이남순)는 지난 5일 유성 스파피아호텔에서 전국 노회 신학교육부 임원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협의회를 열고 7개 신학대학교의 합병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앞으로 이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펼쳐나가기로 했다. 신학대학교 합병의 필요성을 제기하는데 초점이 맞춰진 이날 정책협의회에서 정장복총장(한일장신대)은 '신학교육의 현장 탐색과 제언' 제하의 특강을 통해 오늘날 총회 산하 신학대학교들이 처해 있는 현실을 구체적으로 지적한 뒤, 어떠한 방향으로든 합병에 대한 논의가 시작돼야 할 것을 강조했다.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신학대학교들이 직면한 가장 시급한 문제점에 대해 그는 △신입생 모집의 어려움(신입생 모집과 등록을 모두 저조) △재정적인 어려움(정부에서 교수확보율 61% 이상 요구) △학교중심의 선호도 문제(장신대 출신 선호) 등을 언급했다. "금년에 총회 산하 7개 지역 신학대학교에서 배출되는 목사후보생은 8백83명"이라고 소개한 그는 "현재 이들이 서야 할 목양지는 절대부족하다"고 전제한 뒤, "이토록 많은 신학교를 설립할 때는 교회의 성장과 함께 목회자의 배출이 매우 필요하던 시절이었다"면서 "그러나 지금은 인구감소와 교회성장 둔화 등으로 7개 신학대학교의 합병과 구조조정에 대한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본교단 총회가 추진하고 있는 예장 3백만 성도운동과 관련, 이날 정책협의회에서는 글로벌비전코리아 대표 손정현목사(늘벗교회)를 초청, 섬기는 목회를 통한 교회 부흥에 대해 특강했다. 동탄신도시에서 교회를 개척한 후, 코칭 목회사역을 펼치고 있는 그는 '받은 바로 섬기는 목회' 제하의 특강을 통해 "목회자는 비전과 꿈을 가지고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열정 사명 이미지 성격 재능 등을 발견해

교회와 이 사회를 섬기는 목회사역을 감당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교정선교 위한 후원활동에 총력 다짐"

한국기독교교정복지선교회(이사장:양선회)는 지난 23일 여전도회관에서 제25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교정 선교를 위한 후원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다짐했다. 회무처리에 앞서 열린 예배는 김광기목사(성광교회)의 인도로 이영갑장로(정릉교회)의 기도, 박찬수장로(나눔나라신문)의 축사, 이정원목사(인창교회)의 '거룩한 낭비' 제하의 말씀, 김수진목사(한국교회역사연구원장)의 축도 등으로 진행됐다.

양회선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주님께서 담안의 형제들이 불쌍하고, 어려워서 도우라고 하신 것 만은 아니라며, 금번 강호순 사건에서 보듯이 저들을 그대로 방치하면 계속해서 동일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주님께서 알고 계시면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라고 유추해 본다"며 "우리 교정복지 선교회가 중점적으로 실시하는 무의탁 재소자 영치금 지원을 늘려서 제2, 제3의 강호순이 나오지 않도록 그리고 저들이 천국의 백성이 되도록 돕고 선교하는 일에 더욱 후원해 주실 줄 믿는다"고 전했다.

1984년 12월 12일 한국기독교교정복지선교중앙협의회로 창립한 선교회는 연 교도소 위문예배 2백76회, 신앙상담 2백38회, 세례 1백61명, 12회의 성찬식을 거행하고 있으며 의정부 교도소 외 18개 교도소 1천2백24명에게 무의탁 재소자 영치금 1만원씩을 후원하고 있다.

※ [총회·연합회·교계소식]은 한국기독교공보(<http://www.kidokongbo.com/>)를 참고하였습니다.

복촌우물가

2009년 3월호 · 통권 제189호

발행처: 대한예수교장로회 안동교회

발행인: 황 영 태

편집인: 안 중 혁

발행일: 2009년 3월 8일